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다음 주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중에 세례·입교식과 성찬식이 있고 오후에는 실내에서 사랑방운동회가 있습니다. 세례·입교문답은 30일(금) 오후 5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이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일시: 10월 7일 금요일 11:00~15:00 기증 물품은 다음 주일(10/2) 자연예배당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 바자회 안내문과 포장상품 예약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임원 연수모임이 오후 2시, 자연예배당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세아이 교회 출석 감사)
윤호중 · 하경임 집사 가정 (결혼기념)

강단을 꽃으로 : 오봉순 어머니 (부군 기일)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9 호

2022년 9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인류의 과학 문명은 어느 때보다도 발전해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한 인공물의 총질량이 지구 위의 모든 생물의 총질량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이지만, 마음속 여유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다름만으로도 맹렬하게 대립하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단합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 받았던 인터넷에서 온갖 혐오의 단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면 마음이 심란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미움이 쉽게 흘러나오는 이 시대를, 누군가는 "혐오의 시대"라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미움'이란 단어의 기본형은 '밉다'입니다. 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이 있다.] 찬찬히 살펴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느낌일 때에 사람은 미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도 피어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거슬림을 경험하거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사이에서도 짜증을 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삶에서 지울 수 없을 것 같아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다른 더 큰 것으로 이것을 누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원망할 거리가 참 많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씀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려오셨지만, 이 피조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미워할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쾌락을 쫓는 세상 문화속에서 따돌림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이 아닌, 복음의 전파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박해자들을 피하면 피했지, 증오의 맞불을 놓지 않고 자신들 **선교와 섬김**

속에서 꺼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박해에 증오와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다가갔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자신 내면의 인간적인 '당연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앞서, 먼저 자신이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속 응어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힘은 약해지고 용서는 피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복음의 문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복음 4:17)." 이 말씀은 복음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오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광경을 향해 말이지요. 그 빛나는 길은, 스스로의 어두운 내면을 직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다보면, 서로의 모습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향한 용서에 더 많이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눈앞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 말씀

“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여호수아 21장

제목 :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13 460 420

1. 관찰]

- 1] 1~3 레위인 지도자들이 땅 분배를 요구하다.
- 2] 4~40 레위인에게 땅 분배를 하다.
- 3] 41~45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2. 해석]

- 1]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 2]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 3]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3. 적용]

- 1] 목사, 선교사, 생활공동체, 선교단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자.
- 2]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배우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자.
- 3]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평화가 있는지 살피자.

성서일기

데스티니와 페이버

(1)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관심 가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적 숙제로 장래희망도 적어보고 진학과 직업 선택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일단락 된 듯싶었으나 세상과 나의 처지는 더욱 빠르게 변하여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에 늘 분주합니다.

이전의 계획들은 진학·취업·결혼·출산·은퇴 등 큰 이벤트 때마다 전혀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비전·꿈·커리어·소명·마스터플랜 등 저마다의 좋아하는 표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로 회사생활 10년차에 접어들었고 마찬가지로 향후 커리어를 위해 수많은 동료, 선배들과 상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재무·금융·M&A 단어만 들어도 머리 아픈 자세한 이야기는 미루더라도 정해진 일정과 업무에 치여서 관성적으로 앞으로만 밀려나가다 보니 더 늦어지기 전에 향후 5년과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볼 작전타임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2) 올해 두 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 생일선물로 받은 '데스티니'라는 책은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와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의 계획과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제 맘에 꼭 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버'라는 책은 생사의 고비 중에서도 자신보다 더 절박한 심장이식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함으로써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favor)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어떤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아 대표님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깜짝 선물 받은 것으로, 정식 인터뷰 자리는 아니었지만 주님께 의탁하다 보니 채용과정 중에 상당 시간을 신앙 이야기와 기독교 서적을 받는 일도 다 있구나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3) 책을 선물해준 두 분 모두 올해 처음 만나게 된 인연들인데, 이처럼 여러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올해는 특히 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느끼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 없이 이직과 결혼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기도 과정 중에 있으나 중요한 변화는 제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잠 3:5-6) 여러분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각자만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은혜가(favor)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 김성기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96 : 1-3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5 : 11 인도자
18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여호수아기 24 : 22-33 설교자
246 사랑방
“ 여호수아, 구원의 이름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347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인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김화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구원의 이름

여호수아 이름의 뜻.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그리스어 이름 '예수'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잇딤, 길갈, 세겜. 여호수아는 땅 분배라는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잇딤에서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길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켰습니다. 세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로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으로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생활 양식을 가꾸어 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화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기온의 변화가 심해서인지 꾸러기들이 모두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파서 번갈아가며 결석을 하는 바람에 서로 보고 싶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중남미문화원 나들이가 취소되었고 '장수탕 선녀님' 뮤지컬 관람도 10월에 가기로 연기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온 꾸러기들은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고, 국기에 색칠을 하고, 엄청 큰 선인장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멕시코 소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인디오 음악과 라틴음악을 듣고, 삼바축제 광경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못 주운 밤을 주우러 그루터기 뒤뜰에 가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밤을 주워오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CTS 기독교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서 아침모임 시간을 카메라에 담아갔습니다. 지산이가 결석해서 아쉬웠지만 꾸러기들이 씩스러워하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모임을 잘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기가 다 나아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파랗고 높은 하늘과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은 가을이 깊어짐을 알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환절기에 찾아오는 비염과 감기로 힘든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수요일엔 CTS기독교 TV에서 사랑방공동체 학교를 취재 왔었는데 어린이회의, 철학, 바른생활 등 다양한 모습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떨리고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잘 참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방학동안 열심히 과제를 잘 해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맛배움과 가르침

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해 식사를 못해 아쉬웠는데 하게 되어 참 행복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도보여행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도보여행은 2박3일로 다녀옵니다. 지금부터 걷는 연습도 하고, 골고루 식사도 하고, 체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마도 운동장을 많이 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길 핫팅!!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은 월요일 저녁에 등교했습니다. 지리산 여행을 다녀와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한 한주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CTS 방송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취재의 마지막 학교로 사랑방공동체 학교를 담으러 와서 성서 일기, 공동 심화 학습, 부서 활동, 동아리 등 목요일의 멋쟁이학교 일상을 촬영하고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멋쟁이들의 긴장하면서도 들뜬 모습과 반짝 빛나는 멋쟁이다운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는 열린수업 시간에는 정태일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멋쟁이교양'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가벼운 것이 아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4학년 멋쟁이들과 장성아 선생님이 약 한 달간의 해외 문화체험학습으로 떠난 유럽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다들 얼굴이 조금 탔지만 건강하고 좋아 보여 참 다행입니다. ~ ^^

금요일에는 약 1년간 함께 지낸 엘라(Ella)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멋쟁이들이 영상과 앨범 그리고 롤링페이퍼를 준비하여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엘라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는 돌아온 4학년과 곧 유럽으로 떠날 5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년이 2학기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첫 주이기에 기대가 됩니다.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
< 교사 : 박예나 >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생활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식사당번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요일을 맡아 정하고 일 년간 그 일을 나누어 맡습니다.

물론 요리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해주시기도 하지만 매번 재미있으면서도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집에서 식구들과 먹는 간단한 양도 아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 시간에 맞게 딱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수요일!! 이 날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요일 저녁식사 당번을 맡아서 준비하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마도 6년 이상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주방으로 가서 다음 날인 수요일의 저녁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종종 저와 함께 수요일 저녁식사 당번을 하고 계신 다른 분도 수요일 메뉴를 확인하고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고 함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요일이 되어 어린이들을 집에 보내고 주방에 가면 항상 먼저 와서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또 다른 당번도 계십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볶고, 무치고, 끓이면 멋쟁이들이 왔다 갔다 하며 냄새를 맡고 메뉴를 궁금해 하고 오늘의 메뉴를 맞추기도 하고 한 입 먹고 가기도 합니다. 이 맛에 요리하나요?^^

수요일 식사 당번 분들과 함께 요리하는 중에 함께 식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요리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고, 맛있게 먹고 있는 식구들의 표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것이 힘들어도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잠언 15장 28~30절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평화를 위해>
 - 1) 7개월간 지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 2) 러시아의 핵, 우크라이나의 서방지원 확대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기를 위해
 - 3)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두려워하기를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올해로 예수원 홈스쿨 3년째를 시작합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이 있는데 지도하는 교사들과 다음세대위원들 안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멋쟁이학교 4학년이 입국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위해
 - 2)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코로나와 그 밖의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밤나무에서 딱딱 밤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멋쟁이들은 밤을 주워오고 생밤이라도 신이 나서 까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을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엘라 청년이이 공동체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엘라 청년을 위해 생활 공동체에서 작은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수저 세트와 영어로 된 공동체 소개 영상과 함께 출판물을 준비해서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주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에 손님으로 왔지만 어느새 가족이 된 엘라의 모든 여정과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체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